

#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제목 : 아시아 인권단체, 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철회 촉구  
성명발표

배포일 : 2025. 2. 18

문의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010-4948-6637)

---

아시아 인권단체 및 인권기구 감시 네트워크,  
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

---

- 2025년 2월 17일, 아시아 지역 23개 국가 88개 인권 및 개발 단체 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포럼아시아(Forum-Asia)와 아시아 태평양지역 21개 국가 33개 인권단체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 네트워크(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I)는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포럼아시아는 지난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ANNI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반인권적인 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하고 있는 비상계엄에 대한 옹호라는 인권위 독립성 훼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NHRI)의 기준인 파리 원칙에서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성명]대한민국: 인권위 독립성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는**

### **인권위의 대통령 방어권 보호 권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방콕, 태국 (2025년 2월 17일): 아시아인권개발포럼 (FORM-ASIA)과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NGO 감시 네트워크 (ANNI)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NHRCK)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중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계엄령 선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단지 대통령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게 해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들이 독립성을 보호하고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NHRI)의 기준을 설정하는 파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제2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 중 6명이 (국회에서) 탄핵된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정 결의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려는 국가인권기구(NHRI)의 입장은 국가인권기구(NHRI)로서의 신뢰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포럼-아시아와 ANNI는 독립성을 보호함으로써 파리 원칙을 존중해야 하는 "A 지위" 국가로서의 의무가 있음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FORM-ASIA의 사무총장인 메리 에일린 디즈-바칼로스( Mary Aileen Diez-Bacalso)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FORM-ASIA, ANNI, 그리고 우리 회원들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직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지지하는 최근의 인권위의 입장은 독립성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는 국가 비상 사태에서 "긴급한 인권 침해 해결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정기적이고 상세한 보고서를 적시에 이 사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문서화 및 공개 성명서를 언론을 통해 발표 하고 공개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가지고 스스로 행동"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는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하고, 계엄령 기간 동안 자행된 인권 침해를 규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반대

2월 10일에 열린 전원위원회에는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 단체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는 원래 2025년 1월 20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1월 13일 첫 전체 회의에서 "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2월 10일 투표에서 결의안에 반대했던 남규선, 원민경, 김영직, 소라미 네 명의 위원은 이러한 움직임이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민주적 계엄령 선포를 옹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앞서 언급한 위원 중 세 명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항의하며 사임을 발표했지만, 임기를 계속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 이는 나중에 철회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은 안건 통과에 대해 사과하며 지도부의 결정에 반대해 왔습니다.

포럼-아시아와 ANNI는 한국 시민사회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지도부가 파리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A등급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기구로서, 2024년 12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을 즉시 발표해야 합니다. 비상사태 기간 동안 수행된 관련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포럼-아시아 소개:

아시아 인권 및 개발 포럼(FORM-ASIA)은 23개국 88개 회원 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설립된 FORM-ASIA는 아시아 및 그 밖의 지역에서 연구, 옹호, 역량 개발 및 연대 활동을 통해 인권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ASEAN 정부 간 인권 위원회와도 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FORM-ASIA 사무국은 방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자카르타, 제네바, 카트만두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www.forum-asia.org](http://www.forum-asia.org)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 네트워크 (ANNI) 소개: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 네트워크(ANNI)는 2006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아시아 비정부기구와 인권 옹호자들이 국가인권기구(NHRI)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네트워크입니다. ANNI는 아시아 전역에서 온 국가 조직인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NNI는 현재 21개국 또는 지역에서 온 33개의 회원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NNI 회원들의 업무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아시아 NHRI의 업무와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리 원칙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등급심사 소위원회(SCA)에 대한 상시 관찰이 포함됩니다. 아시아 인권 및 개발 포럼(FORM-ASIA)은 2006년 설립된 이래로 ANNI의 사무국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http://l.forum-asia.org/ANNI>

### **[Statement] SOUTH KOREA: Civil society concerned over NHRCK's independence, urges rescinding President's impeachment defense recommendation**

February 17, 2025

3:44 pm

#### Featured, Statements

BANGKOK, Thailand (17 February 2025): The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and the Asian NGO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I) are deeply concerned ov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NHRCK) controversial decision to recommend guaranteeing President Yoon Suk Yeol's right to defend himself during his impeachment trial.

NHRCK's recommendation advocate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fair trial for those accused of involvement in the martial law declaration. Critics, however, say that this merely enables the President to justify his actions.

We urge the NHRCK leadership to take immediate action to safeguard its independence and to adhere to the Paris Principles, which set the standards of effective and credibl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HRI).

During the second NHRCK plenary session on 10 February 2025, six of the 11 commissioners, including the Chairperson, voted in favor of passing the revised resolution in support of the impeached President.

NHRCK's position of affirming support for the impeached President directly jeopardizes its credibility as the country'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HRI).

FORUM-ASIA and ANNI remind the NHRCK of its obligations as an "A status" NHRI to respect the Paris Principles by protecting its independence.

**“FORUM-ASIA, ANNI, and our members are alarmed that the Commission has still yet to issue an official statement opposing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ts recent position to support the President’s right to defense in his upcoming impeachment trial continues to put the NHRCK’s independence at stake,” said Mary Aileen Diez-Bacalso, Executive Director of FORUM-ASIA.**

According to GANHRI, an NHRI is obligated to “conduct itself with a heightened level of vigilance and independence” during a state of emergency by “monitoring, documenting, issuing public statements and releasing regular and detailed reports through the media in a timely manner to address urgent human rights violations.”

Civil society strongly urges the NHRCK to launch a formal investigation into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December 2024 and to condem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event.

### **Strong opposition against the NHRCK’s leadership**

The plenary meeting held on 10 February was met with protesters from both pro-Yoon supporters and opposition groups. However, the police dispersed the demonstrators.

The second high-level meeting was initially scheduled to take place on 20 January 2025, following the failure to pass a resolution to recommend “countermeasures to overcome the crisis caused by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during its first plenary meeting on 13 January. However, the meeting was postponed to 10 February following strong protests by civil society.

The four commissioners—Nam Kyu-sun, Won Min-kyong, Kim Young-jik, and So Ra-mi—who opposed the resolution during the vote on 10 February stated that such a move would constitute defending the President’s undemocratic declaration of martial law on 3 December 2024.

During a press conference on 11 February, three of the aforementioned commissioners announced their resignation in protest of the NHRCK’s decision but this was later rescinded following strong support from civil society to continue their term and fight for the Commission’s independence.

A number of NHRCK officials have since opposed their leadership’s decision, apologizing for the passage of the agenda.

FORUM-ASIA and ANNI join the Korean civil society in urging the NHRCK leadership to uphold the Paris Principles. As an A-status NHRI, the NHRCK should immediately issue a statement condemning the President’s martial law declaration in December 2024. It must conduct an investigation into the associated human rights violations conducted during the state of emergency.

**##**

**About FORUM-ASIA:**

**The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is a network of 88 member organisations across 23 countries, mainly in Asia. Founded in 1991, FORUM-ASIA works to strengthen movements for human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research, advocacy, capacity development and solidarity actions in Asia and beyond. It has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d consultative relationship with the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e FORUM-ASIA Secretariat is based in Bangkok, with offices in Jakarta, Geneva and Kathmandu. [www.forum-asia.org](http://www.forum-asia.org)**

**About the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I):**

**The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I) was established in December 2006. It is a network of Asian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nd human rights defenders working on issues related to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HRIs). ANNI has members that are national organisations from all over Asia. ANNI currently has 33 member organisations from 21 countries or territories. The work of ANNI members focuses on strengthening the work and functioning of Asian NHRIs to better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as well as to advocate for the improved compliance of Asian NHRI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the Paris Principles and General Observations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SCA) of the Global Alliance of NHRIs (GANHRI). The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has served as the Secretariat of ANNI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6. <http://l.forum-asia.org/ANN>**